

22-11 유럽연 정책동향 보고: 유럽파트너십 성과 보고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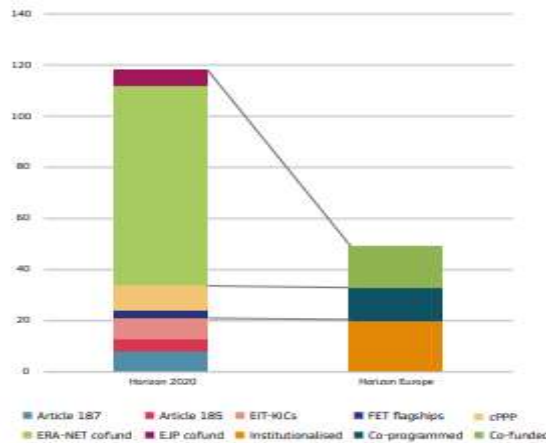
(2022 년 5 월 13 일, 변재선 책임연구원)

I. 유럽/독일 동향

1. 유럽 파트너십 성과 보고서 (Performance of European Partnerships

Biennial Monitoring Report (BMR) 2022 on partnerships in Horizon Europe)
<https://op.europa.eu/en/publication-detail/-/publication/a6cbe152-d19e-11ec-a95f-01aa75ed71a1/language-en/format-PDF/source-search>

- 유럽연합의 파트너십 모니터링 보고서(BMR)는 Horizon Europe 및 European Research Area 의 실현을 위한 전략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격년 주기로 발간됨
- 이를 통해 EU 는 공공 및 민간 파트너와 협력하여 녹색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새로운 솔루션 개발을 가속화하고 유럽의 회복력을 강화를 추구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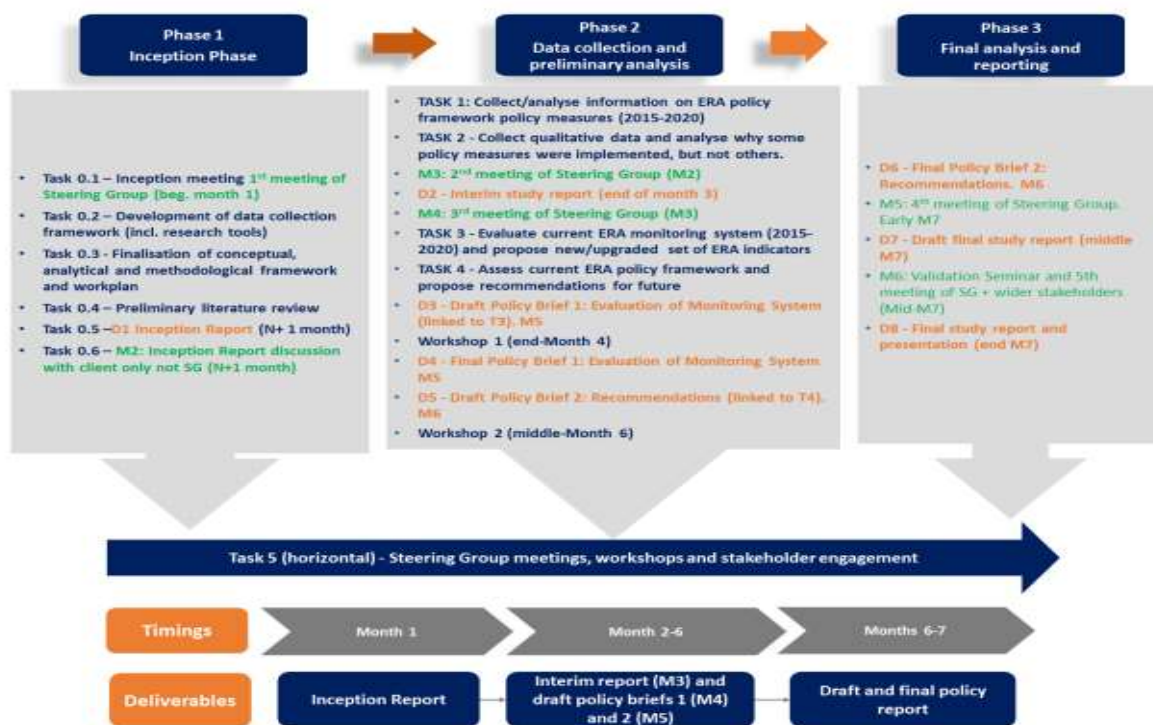


- 프로그램 조정으로 인해 2020 프로그램에 비해 호라이즌 유럽 파트너십 프로그램 수는 120 개에서 49 개 과제로 감소

2. 유럽연구영역(ERA) 프레임워크 및 정책 평가보고서 (Study to evaluate the ERA policy framework and ERA monitoring mechanism)

<https://op.europa.eu/en/publication-detail/-/publication/98a8edb4-c763-11ec-b6f4-01aa75ed71a1/language-en/format-PDF/source-256243590>

- 유럽연구영역, ERA(European Research Area)는 유럽의 연구혁신 기본 조건을 조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, 이를 달성하기 위해 유럽연합은 ERA 로드맵 2015-2020 를 설정 추진중
- 평가보고서는 2015-2020 년의 ERA 거버넌스와 모니터링 및 지표 시스템을 조사 분석하여 12 개의 정책적 권고사항들을 제안함



3. 유럽연구혁신의 날 행사(European Research and Innovation Days) 공고

<https://ec.europa.eu/research-and-innovation/en/events/upcoming-events/research-innovation-days>

- 유럽집행위 연례행사인 2022 년 유럽연구혁신의 날 9 월 28 일과 29 일 온라인 개최
- 정책 입안자, 연구자, 기업가 등이 모여 유럽 및 기타 지역의 연구혁신의 미래를 논의, 정책 반영
- 유럽의 회복력과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유럽 혁신 의제 및 호라이즌 유럽의 임무 등 새로운 솔루션을 논의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
- 온라인 참가신청: 추후 통보 예정

4. 유럽 그린수소 컨퍼런스

Conference: "Green Hydrogen for a Sustainable European Future" (16-17 May 2022)

<https://www.bmbf.de/bmbf/shareddocs/kurzmeldungen/en/conference-green-hydrogen.html>

○ "지속 가능한 유럽의 미래를 위한 녹색 수소" 컨퍼런스 (2022년 5월 16-17일)

- 기후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녹색수소 관련 유럽연합 컨퍼런스로 베를린에서 하이브리드 개최
- 전략적 에너지 변환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단계
- 온라인 등록 플랫폼

<https://survey.pt-dlr.de/index.php?r=survey/index&sid=578487&newtest=Y&lang=en>

5. 독일 „헬름홀츠 원헬스 연구소(Helmholtz-Institut für One Health)" 개소

<https://www.bmbf.de/bmbf/shareddocs/kurzmeldungen/de/2022/04/einweihung-helmholtz-one-health.html>

○ 독일 그라이프스발트(Greifswald) 소재 헬름홀츠 원헬스연구소<Helmholtz Institute for One Health(HIOH)>는 브라운슈바이그 소재 헬름홀츠감염병연구센터(HZI)의 산하 연구소로 설립.

- 연구 분야: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와 독일 메클렌부르크-포어포메른의 두개 모델 지역에서 채취한 샘플을 사용하여 이른바 인수공통전염병과 항생제 내성에 중점
- 연구 방식: 인간과 동물의 건강, 환경 및 기후요인의 통합 모니터링 및 개선을 포함하는 포괄적 연구, "원 헬스(One Health)" 접근 방식의 연구 수행
- 협력 기관: 그라이프스발트 대학 및 대학병원 및 프리드리히 뢰플러연구소(Friedrich-Loeffler-Institut)

○ 인수공통전염병과 항생제 내성: 세계 보건에 대한 위협

- 인수공통전염병은 박테리아, 기생충, 곰팡이, 프리온 또는 바이러스에 의해 유발되는 전염병으로 동물과 인간 간에 상호 전염될 수 있으며,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이 전 세계 보건을 위협
- 항생제 내성 또한 전 세계 건강에 대한 위협이 증가, 박테리아가 일반적인 항생제에 내성을 갖게 되면 질병의 경과를 훨씬 더 심각해지고 환자에게 큰 위험이 됩니다.



※ 독일 연방정부 및 국제 "원 헬스(One Health)" 지원 프로그램

-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국가 연구 플랫폼 : 국가 동물성 전염병 연구 네트워크 „Nationale Forschungsplattform für Zoonosen“

- BMBF 는 2017 년부터 분야별, 학제간 네트워크 강화 및 신속한 연구성과 확산을 위해 5 년간 총 4 천만 유로 지원
- 글로벌 보건 연구네트워크 ANDEMIA: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다중 내성 병원균 확산 대응
- 항생제 내성연구: One-Health 유럽 파트너십 JPI-AMR(Joint Programming Initiative on Antimicrobial Resistance)

6. 유럽연합 제 3 국가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 펀딩 메카니즘 자료 발간

https://ec.europa.eu/info/funding-tenders/opportunities/docs/2021-2027/horizon/guidance/complementary-funding-mechanisms-in-third-countries_he_en.pdf

- 현재까지 유럽연합에서 비회원/비준회원 국가중 호라이즌 참가가 허용된 일부 국가별 보완적 펀딩 메카니즘 소개 책자 발간
 - 현재 승인 국가: 호주, 일본, 멕시코, 뉴질랜드, 중국, 한국 및 스위스
- * 한국의 경우 과기정통부(MSIT)와 산자부(MoTIE)가 연 2 회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과제를 각기 한국연구재단(NRF)와 산업기술진흥원(KIAT)을 통해 일정 연구비를 지원

7. 독일 „리서치게이트“ 전세계 연구자 대상 설문조사

https://www.dzhw.eu/services/meldungen/detail?pm_id=1590

- 독일 연구자 네트워크 <ResearchGate>는 <독일 교육연구과학 센터(DZHW)>와 협력하여 최초로 글로벌 설문조사에 착수
 - 설문조사 내용은 과학자 사회인구학적 특성, 직업 만족도, 학문적 자유도, 직업 전망, 지역 및 국제 네트워킹 인식, 과학 토론 참여 등의 주제를 다룸
 - 기존 독일의 협력이 서방세계와 북반구에 제한되어 남반구 국가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 190 개국, 2 천만명 이상 전문 연구원이 사용하는 리서치게이트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확대하고, 향후 글로벌 정책 변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예정
- 온라인 설문조사 사이트:

<https://www.researchgate.net/blog/state-of-the-research-community-survey>

II. Saarland 지역 동향

1. 사민당 단독 정부 출범

https://www.sr.de/sr/home/nachrichten/dossiers/wahlen/landtagswahl_2022/landesregierung_saarland_spd_minister_staatssekretaere_100.html



○ Saarland 주정부: 사민당 단독 정부 출범,

- 1) Ministerpräsidentin 주총리: 앙케 레링어 Anke Rehlinger (전 경제부장관)

2) Ministerium für Wirtschaft, Innovation, Digitales und Energie

경제, 혁신, 디지털 및 에너지부: 유르겐 바르케 Jürgen Barke (전 경제부 차관, 부총리 stellvertretender Ministerpräsident)



3) Ministerium der Finanzen und für Wissenschaft

재무, 과학부: : 야콥 폰 바이젱커 Jakob von Weizsäcker (전 연방재무부 예산국장)

* 학술연구, 대학과 고등교육기관, 대학병원 업무 이관 (과거 주총리실 관할 업무 이전)



4) Ministerium für Inneres, Bauen und Sport

내무, 건설 및 체육부: 라인홀트 요스트 Reinhold Jost (전 환경부 장관)



5) Ministerium für Arbeit, Soziales, Frauen und Gesundheit

노동, 사회, 여성 및 보건부: 마그누스 융 Magnus Jung (2009 년이후 주의원, 보건위 소속)



6) Ministerium für Bildung und Kultur

교육문화부: 크리스틴 스트라이셔트-클리봇 Christine Streichert-Clivot (연임)



7) Ministerium für Umwelt, Klima, Mobilität, Agrar und Verbraucherschutz

환경, 기후, 모빌리티, 농업 및 소비자보호부: 페트라 베르그 Petra Berg(겸임)

8) Ministerium der Justiz

법무부: 페트라 베르그 Petra Berg (겸임)

* 주의원, 시민당 주의회 대표, Saar-SPD 사무총장, 과거 재무장관 경력



※ 새로운 정부 주요 특징

- 이전 경제성 장관이 주총리가 되고 당시 바르케 차관이 경제성 장관겸 부총리 승격
- 과학기술정책이 총리실에서 재무부로 이관, 향후 자문위원회 주정부 위원 변경 예상
- 주정부 과학기술 정책에서 교육연구 분야 재정 투자 대비 성과 중요성이 강조될 전망
- 디지털 혁신 업무가 총리실에서 경제부으로, 노동시장 정책은 경제부에서 사회부로 이전
- 재무부 소관 유럽정책이 주총리실 직속 업무로 이전